

약속의 땅에 거주한 이삭

말씀: 창세기 25:1-26:35

요절: 창세기 26:3,4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믿음의 2대 조상 이삭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창성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50장까지 믿음의 족장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00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00에 대한 내용은 가장 짧습니다.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삭이 비중이 작아서 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이 신앙이 성숙하여 비교적 순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전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도왔을 때도 그대로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적이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이라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이 어떻게 이 역경을 이기고 오히려 흉년의 때에, 시련의 때에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흉년의 때, 시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삶 가운데서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에게는 크게 3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에게 임한 시련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5:21a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리브가가 임신을 못 하므로 자녀가 없었는데 몇 년동안 없었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없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40세면 지금도 늙은 나이이지만 당시로도 늙은 나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족들이 자녀를 낳는 나이가 나오는데 보통 30대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40대에 결혼을 하고,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는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시집왔습니다(24:60). 그런데 천만인은 커녕 20년동안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 25:13,14절에 보면 이복 형 이스마엘은 벌써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각자 촌락을 이루고 열 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마엘 형 소식을 들으면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20년 동안 무자했습니다.

이삭은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25: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녀 문제를 위해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0년동안 줄기차게...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녀가 없자 가나안에 거주한지 10년 만에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났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20년 동안 무지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인내의 사람 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20년 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25:21b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 즉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임신하되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 2명을 임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원망과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더블로 축복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한꺼번에 쌍둥이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마음으로 더블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양으로, 목동, 목자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든, 양이든, 장래문제든, 가정문제든, 직장문제나, 결혼문제에서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난리를 피울 수 있지만,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14,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자신의 유익과 자기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되 더블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2: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믿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포기치 않고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십니다.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이삭에게 닥친 시련은 흉년이었습니다.

26: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창12:11). 그때 아브라함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생존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흉년이라 먹고 살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현재있는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흉년이 끝나고 먹을것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도 위험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애굽은 각종 우상과 죄가 넘쳐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중심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명의 땅을 지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한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후손가운데 태어나게 될 메시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흉년의 때에 척박한 땅에 머물게 되면 계속 손해만 날 것이 뻔합니다. 어디서 식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데, 비전과 축복의 말씀도 좋지만 일단 목이 포도청인데, 그랄에 거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선택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요즘 캠퍼스 복음역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명을 놓아 버리고 현실적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복음역사는 흉년이기 때문에 빨리 짐싸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스텝목자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니 불쌍한 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빨리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 정성을 쏟아 부어도 제자 한 사람 세우기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 역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도 되고,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흉년에 우리 쌍둥이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실래요?”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7-1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 땅에 거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런 하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몰래 창을 내다 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사이인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이니 건들면 기만 안 두겠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남의 집 몰래 훔쳐보는 못된 버릇도 쓰셔서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방법은 신기하고 놀라울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농사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2-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별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의 농사만 잘 되어서 백 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크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에 그저 살아 남은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특별한 농사법을 개발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고자 잔머리를 굴린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오직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오, 복의 근원임을 배우게 됩니다. 땅위는 분명히 흉년이지만 땅속에 축복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드러난 것만 봅니다. 지금 흉년인가 아닌가? 지금 여기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만 보고 그것만을 좋아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밑에 보물을 숨겨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땅 속에 숨겨진 복의 수맥을 보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지금 안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이 엄청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 안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인생은 마지막까지 모른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자기 고집을 피워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정도 흉년은 피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애굽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흉년을 100배의 풍년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줄기차게 거하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유익을 따라 이리 저리 한 눈 팔고 돌아다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삭이 당한 시련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팝박이었습니다.

14,15절을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의 때 자기들은 어려운데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거부가 되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물이 부족한 균동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샘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으니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추방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때 이삭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당장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중동지방은 우물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맥을 잡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상하게 물이 금방 나왔습니다. 이때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는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남이 고생고생해서 파 놓은 우물을 갈취하는 도적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예섹(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물 이름을 삯나(적대)라고 짓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물을 메우고 빼어봐야 이삭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공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더 넓은 공간을 주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고 외쳤습니다. 이삭은 정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팝박해도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리라 믿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셔서 브엘세바에서 밤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무리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내고 우물을 메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에 이삭은 큰 힘을 덧입고 그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팝박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덧입은 이삭

은 신이 나서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팔습니다. 이제 이삭은 우물 파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물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우물학을 전공한것도 아닌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파다가 우물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기만히 지켜봐오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이삭보다 이삭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삭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계약체결을 부탁했습니다. 28,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28,29)”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려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여호와를 믿으라고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선으로 약을 이긴 진정한 ‘믿음의 영웅’ 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로 고백되어지기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삭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지켜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부탁을 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양보했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싸우지 말고 이삭처럼 말없이 우물 파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샘을 더 깊이 파야 하겠습니다. 고 이사му엘 선교사님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써름하며 더 힘을 써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더 영감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시련 속에서 더 큰 부흥을 체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22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19: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말씀은 역사가 잘될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말씀의 샘을 파면서 생수와 같이 어느날 심령에서부터 생수와 같이 터져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이 UBF의 요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 찾아다니며 인간적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기 보다 말씀 붙들고 써름함으로 말씀의 샘을 파야 하겠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위기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실 밑에서 축복의 물줄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이삭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자함, 흉년, 팍박, 추방명령.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묵묵히 우물을 팔습니다.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셨습니다. 교만한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삭이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패배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인생역전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